



# 정교회주보

제2593호

2026년 9월 6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과거의 모습을 뒤로한 채, 기둥 하나만 남아 사도 바울로의 시대를 증언하는 에페소의 아르데미스 신전 유적



마태오 제14주일  
성 갈로도티 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3)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 사도경 : 고린토 후 1,21~2,4 (봉)239
  - 복음경 : 마태오 22,2~14 ..... 11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곧  
세계 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사  
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고린토 후 1,21)

## [35회] 아르데미스 소동

**복**음이 에페소에 확산하자 도시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아르데미스 우상 숭배가 흔들렸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생업이 위험하  
다"라며 군중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극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은 두 시간 동안 "에페소의 여신 아르데미스  
만세!"라고 외쳤다.(사도행전 19.23-34)

이처럼 참된 복음은 때로 기득권의 탐욕과 충돌하며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하지만 사도 바울로는 이 격렬한  
소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신비로운 보호를 체험했다.

에페소 시장의 중재로 소요는 가라앉았고, 진리는 복  
음을 막으려는 세상의 음모보다 강함을 증명했다. 세상  
의 소음은 잠시뿐이었지만,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진리는  
거룩한 교회의 신앙 전승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었다.

오늘도 교회는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진리만을 수호한다.

# 혼인 예복을 입는 삶

박인곤 요한 신부



**요**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재판정이 아니라 혼인 잔치로 표현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친교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찬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봅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너라.”

**둘째,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큰 죄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습니다. 밭과 장사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의 좋은 것과 필요한 일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성찬예배를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하느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찾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간과 생각과 마음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혼인 예복은 세례를 통해 입는 새로운 인간의 옷이며, 회개와德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교만과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옷 입어 가는 삶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초대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초대에 응답하느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에 억지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느님의 초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하느님 앞에서 있는가? 교만과 미움과 원망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회개의 옷, 겸손의 옷, 용서와 자비의 옷,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단지 초대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응답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 성모님과 성인들에 대한 공경 2

안토니 블룸 대주교(1914-2003)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성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시성(諡聖)은 상대적으로 후기의 현상이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시성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겪은 순교자는 죽은 뒤 곧바로 신자들에 의해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 신자들은 순교자에게 기도하였고, 그 성인의 무덤 위에서 성찬예배를 드리곤 하였다. 오늘날까지 정교회 안에서는 순교자나 성인의 성해(聖骸) 위에서 성찬예배를 드리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늘날 지상의 교회와 하느님에 의해 영화롭게 된 성인들로 이루어진 천상의 승리한 교회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것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토대이며 기초를 이루는지를 보여준다. 터툴리아누스(155-240)는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 교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특정한 성인에 대한 공경은 시성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교회의 시성은 어떤 성인에 대한 사람들의 공경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 생애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이 있으나 그런 분들에 대한 공경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다. 4세기 미라(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대주교였던 니콜라스 성인이 좋은 예이다. 그는 동방과 서방의 교회 모두에서 성인으로 영광을 받으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다. 성인에 대한 이 같은 보편적인 공경은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니콜라스 성인은 자신이 도와주고 죽음에서 구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굳이 성인들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느낀다. 하지만 성인들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중개인이거나기보다는, 도리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친구들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늘나라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정교회 안에서 성인들을 둘러싼 이러한 공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들과 직접적이고 살아 있는 친교를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산 이와 죽은 이, 성인과 죄인 모두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가 지닌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 주간 예배 안내

\* 9월 8일(화)  
성모 탄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바로 잡습니다  
축일 달력의 오늘(9월 6일) 복음  
구절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존) 마태오 21:2-14  
(정정) 마태오 22:2-14

## 소 식

### ■ 서울 성당 '사랑의 오찬' 재개

여름 무더위로 8월 한 달간 쉬었던 사랑의 오찬(점심식사)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의 오찬은 성찬예배 후에 이어지는 '예배 후의 예배'로, 성찬을 함께 모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두 지하 선교회관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다른 교우들과도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오찬 후에는 각 단체 모임이 이어집니다.

### ■ 다니엘 대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님께서 최근 병세가 악화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부님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모두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 ■ 정교회 축일달력 - 스마트폰 앱 출시

정교회 축일달력의 스마트폰 앱이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 구원의 확신

언젠가 제자들이 한 훌륭한 스승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한 번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나는 매일 매일을 살면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네.”

